

ISSUE BRIEF

청소년 with 이주배경

2025. 08.

14호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상담 지원 방안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은
이주배경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발간번호

MYF25-07-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포괄적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현장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2021년부터 **청소년 with 이주배경**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with 이주배경」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여는 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특수성과 개입 방안	02
서은경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1. 실천 방향과 현장기반 전략

효과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을 위한 제언	10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체계, 함께 만드는 변화	16
이은지, 김주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 현장 리뷰

마음의 창을 열어 너를 만나다	24
김은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기지역)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30
김거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상지역)	
삼자상담 속 통역사의 역할은?	36
우수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상담통역지원사(몽골어)	
학교 현장에서의 정서적 회복과 변화	40
이재아 서울영일초등학교 전문상담사	

여는 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특수성과 개입 방안

서은경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27년 동안 상담 현장에서

‘더불어 함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하여 내담자분들의

성장을 조력하고 있는 상담심리전문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46대 부학회장 역임, 명지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younhapcounseling@naver.com

들어가며

글로벌화의 심화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가정에서 자란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아닌, 언어적·문화적 장벽, 정체성 혼란, 소속감 결여, 차별과 편견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존재다.

1.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특수성

인간의 문제를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통합적인 생물-심리-사회문화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❶에 근거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요인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신경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 잦은 이주 경험, 문화 전이, 사회적 차별 등은 스트레스 반응계(HPA 축;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과민성을 활성화시키며, 만성적인 긴장 상태나 불안,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감정조절 능력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이주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영양

❶ 조지 엔젤(George Engel)이 1977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생물심리사회 모델은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델이다. 이는 정신 장애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을 독립적인 각각의 변인으로 여기지 않고, 세 변인들이 각각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Engel, 1977).

섭취와 수면 환경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체 발달의 급등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뇌 발달, 집중력 및 충동 조절 능력에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언어 표현이 제한된 청소년은 좌절 및 결핍된 욕구와 연결된 불안·공포·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복통, 두통, 피로 등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의 신체화 증상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2) 심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 정서 조절, 자기 인식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❷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identity vs. role confusion)’이라는 핵심 발달 과업이 중심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단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자율성 확보 외에도 두 문화 간 정체성 중첩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 언어와 가정 언어 간의 차이, 부모와 자녀 간 문화 인식의 간극은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정 내 문화(부모의 모국 문화)와 학교나 지역사회 내 주류 문화 사이의 가치관 충돌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 편견, 언어적 모멸, 소외, 이문화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 청소년은 발달 지연이나 우울, 불안, 분노, 회피 등의 대인 외상 후 편향된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적절한 개입이 없을 시는 복합 외상(Compound trauma)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초등 고학년~중학생 연령대에서는 사회적 비교와 소속 욕구가 강해지므로, 배척 경험이 자존감과 대인관계 효능감을 비롯한 심리적 발달의 비대칭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및 학습의 이중적 장벽을 경험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모국어와 제2언어 간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학업 부진이나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와 같은 실패로 인식되는 경험에 취약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바보 같다’라는 부정적 자기 결론에 이르고,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저하를 초래하여 부적응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 쉽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보다 빠르게 언어와 제도적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 부모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청소년이 가족 내 ‘통역사’, ‘행정 대리인’ 혹은 ‘대리 보호자’ 역할을 하며 조기 부모화(Parentification)나 책임 과잉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조와 역할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또래와 다른 성장 궤적을 유발하며 자율성과 정서적 의존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면서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외모, 언어, 배경

등으로 인해 또래나 사회로부터 차별과 사회적 배제 경험에 노출되어 있고, 체류자격
미비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제도적으
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도 많다. 이는 자기 돌봄과 또래관계 형
성을 비롯한 다양한 발달적 과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상담 개입 방안: 다학제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은 생물학적(신체적 긴장, 수면·영양 불균형), 심리학적
(정체성 혼란, 정서적 외상), 사회문화적(차별, 배척, 제도적 소외)인 입체적 요인 속
에서 고유의 상담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 개입은 단편
적인 심리상담을 넘어, 이들이 처한 복합적 환경과 발달 과업, 문화적 정체성을 아우
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의 심리평가적, 발달심리학적, 긍정심리학
적, 사회문화적, 신체감각 심리치료적 관점은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상담을 설계하
는 데 주요한 틀을 제공한다.

1) 심리평가적 관점

상담 개입의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심리평가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화 심리
검사는 주로 비(非)이주배경청소년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편향
(Cultural bias)의 위험이 존재한다. 예컨대, 언어 능력의 결핍은 인지 능력의 저하로
오해될 수 있으며, 정서 표현 방식의 문화 차이는 우울 혹은 불안의 진단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문화 적응형 검사도구 사용과 비언어적 평가 방법(예: 그림 검사,
놀이 관찰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내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구조, 학교 분위기, 사회적 차별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다
차원적 사례개념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학업 성적, 또래 관계, 부모 관계,
거주환경, 출신 국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호자·교사·지역사회와의 면
담을 통해 질적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즉, 생태학적 정보 수집을 통한 다면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상담 초기에는 초기 적응 스트레스 평가 혹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Cultural adjustment stress)’를 평가하여, 단기적 정서 반응(예: 불안, 우울, 수면 장
애)과 장기적 구조 문제(예: 학업 포기, 이탈 행동)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유형 검사 도구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발달심리학적 관점

이주배경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동일하게 자아정체감, 또래관계, 독립성 발달
등 발달적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정체성의 혼란, 조기 부모화, 사회적 배척 등으로 인
해 발달 경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한 상담 개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정체성 통합을 위한 내러티브 기반 상담: 촉진 상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 탐색 활동과 자기 문화와 현재 삶을 연결하는 스토리
텔링 활동 등 활용
- (2) 조기 부모화에 대한 탈중심화 상담: 역할 전환과 책임감 조절을 위해 ‘보호자 역
할 맡은 아이’의 부담 완화 작업. 특히 가족 내 통역사/대리 보호자 역할 수행 청
소년에게는 자기 돌봄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돕는 상담
- (3) 연령대별 발달 과제 중심 개입: 자율성과 소속감 회복을 위한 또래 관계 형성, 진
로 탐색 등 각 발달 단계에 맞춘 주제 중심 상담 진행

3) 긍정심리학적 관점

이주배경청소년은 종종 결핍, 취약성, 위험군으로 규정되곤 한다. 하지만 긍정
심리학은 개인의 강점, 회복탄력성, 의미감에 주목하고 이들을 ‘문제 있는 대상’이 아
닌 ‘회복 및 성장 가능한 존재’로 재구성한다. 즉, ‘결핍 모델’이 아닌 ‘자원 모델’을 통
해 상담 접근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긍정심리학적 상담 개입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강점 기반 상담(Strengths-Based Counseling):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환경 적응력, 언어 능력, 생존력 등을 자산으로 재구성하고 숨은 강점 발굴
- (2)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역경 속에서 성장을 이끄는 심리적 자원(낙관성, 자
기조절, 사회적 지지)을 강화하고 자기조절 및 사회적 지지
구축 훈련
- (3) PERMA 모델^③ 기반 긍정 정서 증진: 감사일기, 자기 칭
찬, 미래 상상 글쓰기 등 자기 긍정감 및 미래 기대를 높
이는 긍정적 심리기술훈련

③ 긍정심리학 창시자 Seligman(2011)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역량으로서 플로리싱(Flourishing)을
소개하고, 그 구성요소를 5가지 다차원적 특성으
로 Positive emotion(긍정정서), Engagement(몰
입), Relationship(긍정적 관계), Meaning(의미),
Accomplishment(성취)를 소개함.

4) 사회문화적 관점

이주배경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사회 구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상담은
개인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 차별, 편견, 배제의 경험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 전이 이해와 공감 제공: 이문화 충격, 소속감 부족 등 문화 적응 스트레스
에 대한 공감적 상담
- (2) 사회적 차별 경험에 대한 외상 회복적 접근: 차별에 대한 감정 정리, 정서적 자기
지지 및 자기 옹호 기술(Advocacy skill) 교육
- (3) 문화 적응 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 회복: 문화 교류 활동, 또래 다문화 멘토링
- (4) 학교 및 지역 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상담센터, 위(WEE)센터(Wee:
We+Education+Emotion), 지역 학습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지원.
특히 언어적 장벽은 학업 스트레스와 직결되므로, 상담자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사·학부모와 협력해 언어적 지원(예: 한국어 교육 연

계, 숙제 지도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학습 문제를 단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

이러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상담자의 역할을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문화통역사’, ‘시민적 조력자’로 확장시킨다.

5) 신체감각 심리치료적 관점

이주배경청소년은 이문화 스트레스, 차별, 소외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고 신체에 저장된 감각 기억으로 남는다. 특히 언어 표현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일수록 신체 기반 개입이 효과적이다. 이에 대한 상담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신체감각 기반 상담: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자동화된 신체 반응(예: 움츠림, 숨 멎음, 경직, 몸의 긴장, 억눌린 감각 등)을 관찰하고, 이를 안전하게 표현하여 해소하는 훈련
 - (2) 신체 중심 표현활동: 음악, 미술, 드라마 치료 등을 통해 비언어적 감정 표출 유도
 - (3) 마음챙김 및 안전지대 훈련: 호흡 조절, 감각 인식 훈련을 통한 자기 조절력 회복
- 이러한 접근은 대화 치료(Talk-therapy)로 접근하기에는 신경계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며, 인내의 창(Window of Tolerance) 안에서 안전한 심리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마무리하며: 진정한 포용을 위한 상담,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주배경청소년은 단지 ‘특수한 집단’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다. 그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상담 또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포용’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은 개별 청소년의 고통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장치다. 이를 위해 상담자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정책 결정자 모두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과 통합적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시험대다. 그리고 그 답안은 ‘다름을 이해하는 상담’에서 출발할 것이다. 🌈

참고문헌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Engel, G. L. (1977). The need for a new medical model: A challenge for biomedicine. *Science*, 196, 129-136.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Ogden, P., Minton, K., & Pain, C. (2006). *Trauma and the body: A sensorimotor approach to psychotherapy*. W. W. Norton & Company.

Sue, D. W., & Sue, D. (201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7th ed.). Wiley.

van der Kolk, B. (2014).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Viking.

김민지(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197-231.

박진우, 장재홍(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서영석(2017).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서울: 집문당.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2024). *발달심리학*. 학지사.

오노 벤 더 하트, 엘리트젠투스, 캐시 스틸(저) · 김중희 역(2013). *간헐 자: 구조적 해리와 만성 트라우마의 치료*. 시그마프레스.

우문식(2021). *마틴 셀리그만의 팔마스 중심 긍정심리학*.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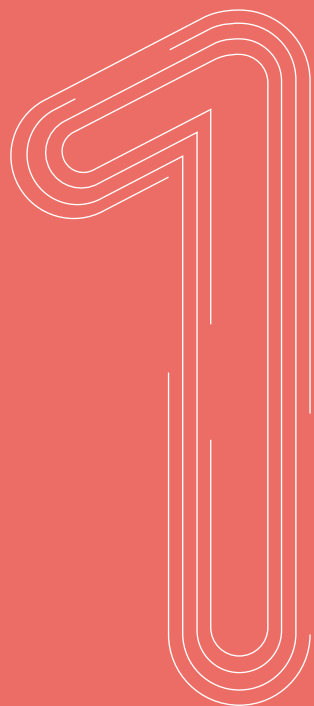
이지선, 김정민, 주아란(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분석 -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 *청소년시설환경*, 16(2), 117-130.

조안나(2023). 성장배경이 상이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의 영향 비교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3), 77-1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 경험 및 심리적 특성 조사보고서*.

PART



효과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을 위한 제언

오인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체계, 함께 만드는 변화

이은지, 김주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실천 방향과 현장기반 전략

효과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을 위한 제언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 전공 교수로서
아동·청소년의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상담 및
아동청소년 상담 관련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환경의 아동을 위한
정서·행동 발달 지원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insoo@ew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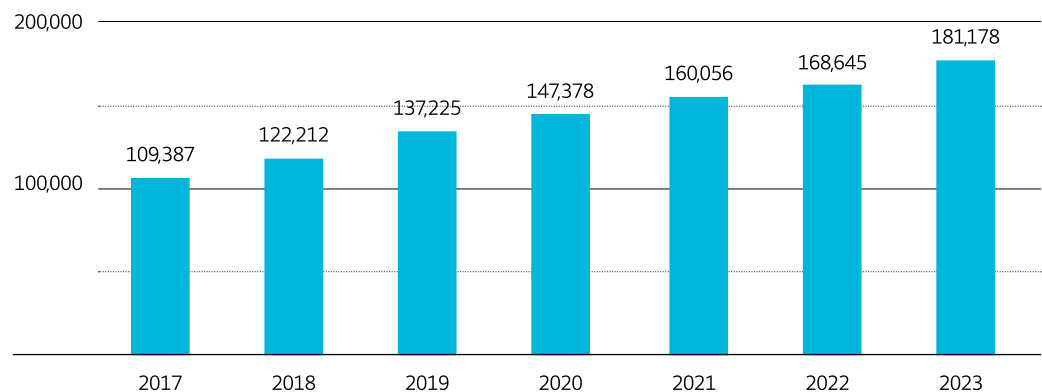
1.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중요성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주변에서 흔하게 국제결 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구성원을 보게 된다. 이들의 자녀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8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다문화교육포털, 2025^❶).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이주배경청소년 상담과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❶ https://www.edu4mc.or.kr/guide/typeStat.html?utm_source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2017 - 2023)

단위: 명



출처: 다문화교육포털, 2025

이주배경청소년은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적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어 상담의 필요성이 가중된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과의 관계, 학교 적응, 학업 성취, 진로 탐색 등의 발달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언어장벽, 문화충돌, 차별과 편견이라는 이주 특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은 이들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된 전문적인 상담은 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다양성이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시대에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며,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은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어려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은 일반 청소년 상담과는 다른 복합적인 어려움을 동반한다. 먼저, 언어적 장벽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구사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감정이나 생각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에 도전 요소가 되고, 상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부 청소년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나, 통역사의 개입은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거나, 감정 표현의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문화적 차이는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상담에 대한 이해와 기대 자체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내담자의 태도와 반응을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셋째, 가족의 상담 비협조 또한 상담의 어려움 중 하나다. 이주배경가정에서는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어려움을 학교나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를 지닌 동양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시선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은 단순한 개인 상담자에서 가족과 학교를 연결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징을 감안한 조정자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자신의 상담 역량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상담자의 경우 상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거나,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국내 상담자 양성과정은 외국과 달리 다문화상담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거나, 상담 교육과정으

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 역량이 겸비된 상담자 배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이주배경청소년 상담매뉴얼의 필요성

현재까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대부분 개별 상담자의 경험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의 일관성과 효과성에 한계를 초래하며, 내담자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매뉴얼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지원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2022년 발간한 『이주배경청소년 상담매뉴얼』은 매우 의미 있는 상담지원자료라고 볼 수 있다.

상담매뉴얼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명시함으로써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상담의 각 단계를 구조화하여 상담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사례 기반의 접근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상담매뉴얼은 상담자뿐 아니라 학교, 지역 사회,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언어이자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향후 다학제적 지원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 과정별 실천 방향

가. 초기 면접 및 신뢰관계 형성

이 단계는 상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내담자가 방어적이거나 불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비언어적 표현(표정, 제스처, 태도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배경에 대한 존중, 무비판적 태도, 따뜻한 현대의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면접 초기에 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 생활의 어려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가 다양한 내담자의 모든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진솔하게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나. 심리사회적응 평가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현재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언어 능력, 학교 생활, 정서 상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심리검사 도구는 문화적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중립적이고 맥락 친화적인 평가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심리사회적응

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상황적,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문화 적응,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정신건강 및 위기의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매뉴얼의 5부에 제시한 심리사회적응 영역별 상담 사례에 제시한 심리평가 결과를 참고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 있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목표 설정

내담자 중심의 접근이 기본이 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를 더 사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학교에서 하루에 한 명과 5분 이상 이야기하기’와 같은 행동 목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청소년 상담의 특성상, 내담자가 전적으로 탐색하거나 선택하도록 하기보다는 상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함께 선택지를 탐색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아직 인지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상담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도록 돕되, 그 과정이 혼자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전략 수립 및 실행

문제 해결 중심 전략뿐 아니라 강점 기반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다언어 능력, 문화 간 시각, 인내심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존감을 강화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상담 접근이 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약성과 문제에 주목하여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에 더해 이들의 강점, 잠재력, 보호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긍정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 회복탄력성,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은 상담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상담자는 이를 존중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입을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적 장벽들—예를 들어 제도적 차별, 언어 장벽, 학교 내 배제 경험,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옹호(Advocacy)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개입을 넘어서, 이주배경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은 개인상담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상담, 부모상담, 교사 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회적 개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로 이어져야 한다.

마. 상담 종결 및 추수 상담

상담 종결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상담 과정을 되돌아보며 성취한 점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또래 또는 가족 내에 정서적·실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지역사회 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추수 상담을 실시하여, 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상담자는 종결 이후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고 삶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자문(Consulting)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용한 정보나 자원(예: 언어 교육 기관,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센터, 또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Coordinating)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연결, 멘토 프로그램 참여, 장학사업 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내담자의 환경을 성장지향적으로 조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담자가 단절된 관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새로운 성장의 발판 위에 안정적으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5. 효과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을 위한 제언

앞서 설명한 내용은 상담매뉴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상담의 단계별 실천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내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가정, 지역사회, 제도 등 다차원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복지기관, 지역사회 자원 등과의 구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실 외부에서도 내담자의 삶의 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단편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례관리 기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성과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 및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나 실무자용 지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 교육, 복지,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다학제

협업 체계와 초기 상담부터 종결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연계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핵심 기반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어떻게 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실천적 응답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매뉴얼은 상담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서 기능하며,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의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상담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체계, 함께 만드는 변화

이은지, 김주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거점지역
상담과 사례관리, 심리사회적응검사,
상담통역지원사 운영을 하고 있다.
전문적 상담 제공과 상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 elee@rainbowyouth.or.kr
✉ amabile2703@rainbowyouth.or.kr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12년부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통합적 상담체계 : 실천 기반 심리정서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은 단순히 언어적 차이를 지닌 청소년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정체성, 가족 관계, 이주 경험이 중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혼란, 소속감의 결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은 이들에게 존재를 긍정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통로이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장면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맞춤형 상담은 성장을 지지하는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수년 간의 현장 기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통합적 심리정서지원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주요 축은 다음의 세 가지다.

1. 이주배경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마음톡톡상담’

‘마음톡톡상담’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삶의 경험을 언어화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이다. 특히 상담사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 방식은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상담사는 문화적 정체성, 가족구조, 이주 경험, 학업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담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나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상담 자원을 늘려가는 한편, 동시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7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에 배치된 전문상담자는 다문화 감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이주 경험, 문화적 정체성,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상담계획을 수립한다.

상담은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심리정서 상담(자기탐색, 정체성, 대인 및 가족관계 어려움, 적응 문제, 우울 및 불안, PTSD, 인터넷중독 등), 진로진학 상담(진로탐색 및 결정, 학교진학 등), 위기상담(집단따돌림, 폭력, 가출, 자살 등), 맞춤형 정보제공 및 심리검사까지 폭넓게 제공되며, 필요시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사례관리까지 진행한다.

재단은 ‘찾아가는 마음톡톡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사례회의, 평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도구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① 이주배경청소년 상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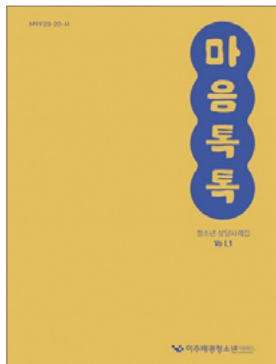


2022년 개발한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매뉴얼」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과
상담 개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매뉴얼은 이론편과 실전편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편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실전편은 ‘찾아가는 마음톡톡상담’의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실제 상담 사례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상담전략 및 구체적 개입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② 마음톡톡 상담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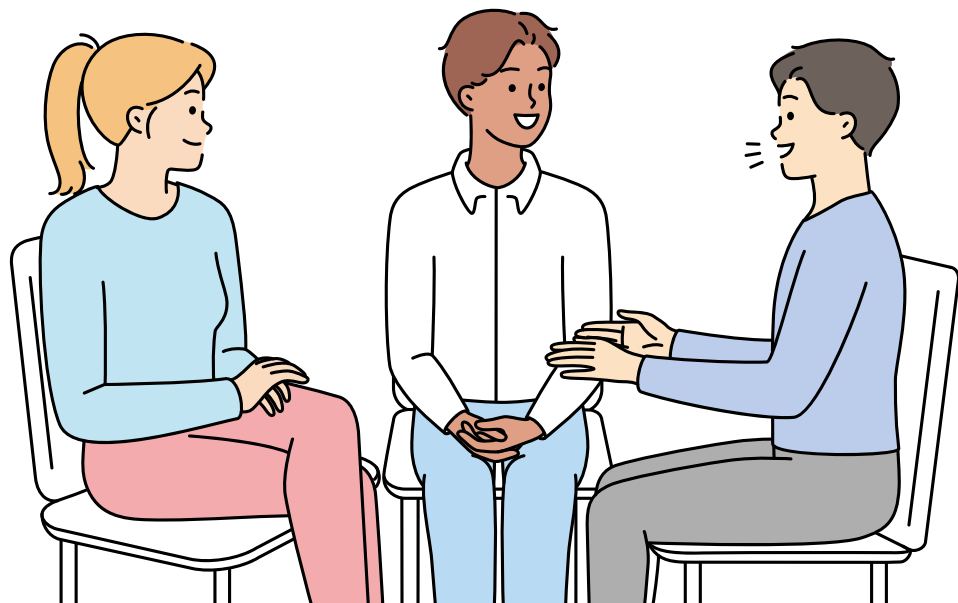


2023년 제작되었으며,
실제 진행된 상담 사례를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개입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2. 언어·문화의 경계를 잇는 상담통역지원사

언어의 차이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편하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통역지원사를 상담에 파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인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5개의 언어를 지원한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통해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담 분야인 만큼, 상담통역지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① 상담통역지원사 신규 양성교육 교재(3종)



신규 상담통역지원사를 위한 양성교육교재로, 실무활용가이드, 이론교재, 실습교재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교재는 언어권별로 나누어져 통역실습에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② 실습교육



영상으로 제작된 실습교육자료다.
상담 초기, 중기, 병원상황 등 상황별로 제작되어 상담통역지원사들이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통역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③ 마음톡톡 상담통역지원사 실습교재



2023년 제작,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통역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누락, 오역되면 안되는 중요한 상담 개입,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다.

상담통역지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단은 지역기관에서 신규 상담통역지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단의 경험과 교육 콘텐츠 및 교재를 제공받아 '23년도 9명, '24년도 11명을 선발 및 양성하였다.

3. 맞춤형 상담개입을 위한 심리사회적응검사

2021년에 개발한 ‘심리사회적응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문화적응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정신건강 및 위기의 4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는 중국·러시아·베트남·제3국 출생 탈북 등 주요 문화권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쉬운 언어로 설계되어 입국 초기 청소년도 부담 없이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로 검사지가 제공되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검사 홈페이지



심리사회적응검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검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https://test-rainbowyouth.or.kr/>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향후 과제와 방향

찾아가는 마음톡톡상담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담통역지원 요청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재단은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상담 인력 배치, 마음톡톡상담사와 상담통역지원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체계 강화,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상담도구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민간·현장 실천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체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모든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상담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PART



마음의 창을 열어 너를 만나다

김은아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기지역)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김거성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상지역)

삼자상담 속 통역사의 역할은?

우수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상담통역지원사(몽골어)

학교 현장에서의 정서적 회복과 변화

이재아 | 서울영일초등학교 전문상담사

현장 리뷰

마음의 창을 열어 너를 만나다

김은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기지역)
청소년상담사 겸 상담심리사로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담하고 있다.
✉ eunaena@hanmail.net

이렇게 상담이 시작된다

상담의뢰서를 전달 받으면 늘 마음이 설렌다. ‘이 아이는 어떤 아픔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여럿의 관련자들과 연락을 통해 약속을 정하고 비로소 내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발걸음이 묵직해진다. 긴장과 책임감이 더해진다. 의뢰서에 한글로 적힌 외국어 이름이 입에 붙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내담자가 살아온 시간을 묻고 이야기를 듣는다. 스스로 정의내리기 어렵기도 한 고민이나 문제를 나눠본다. 의뢰서에 한글로 적힌 주요 호소 문제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경우도 많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글자 형태로 종이에 적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한껏 열어야 한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라도 받아들이고 공감하려면 마음의 창을 크게 열어야 한다. 꺾꽂이 담았던 감정을 눈물로 터뜨리는 순간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가까워진다. 마음의 거리가 그렇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공간과 상황이 다르지만 상담은 그렇게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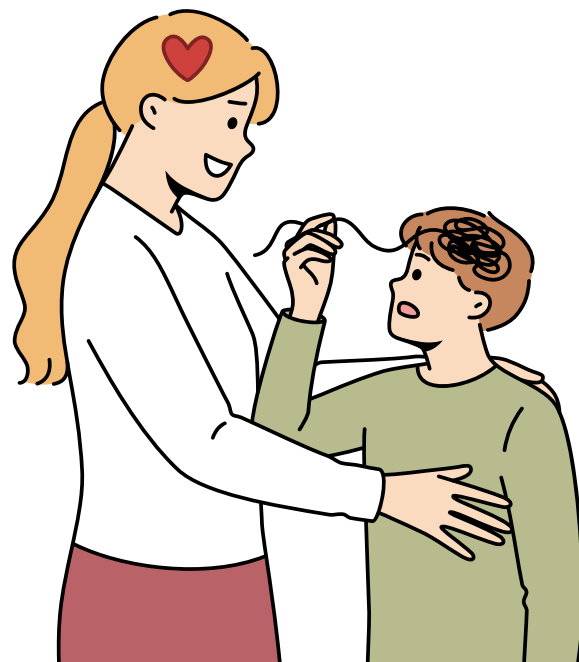
눈이 맑은 아이를 만나다

나의 첫 내담자는 대학원 상담실습 중에 만난 필리핀 출신의 15세 중도입국 청소년이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①는 외부 기관과 MOU를 맺어서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고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을 다지는 실습과 목이 있었다. 처음 대면한 아이는 심한 곱슬머리로 열다섯

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https://www.kcgu.ac.kr/> 2010년 개교한 상담심리전문대학교로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 중이며 상담심리학과에서 아동청소년, 철학, 인문 상담 등을 전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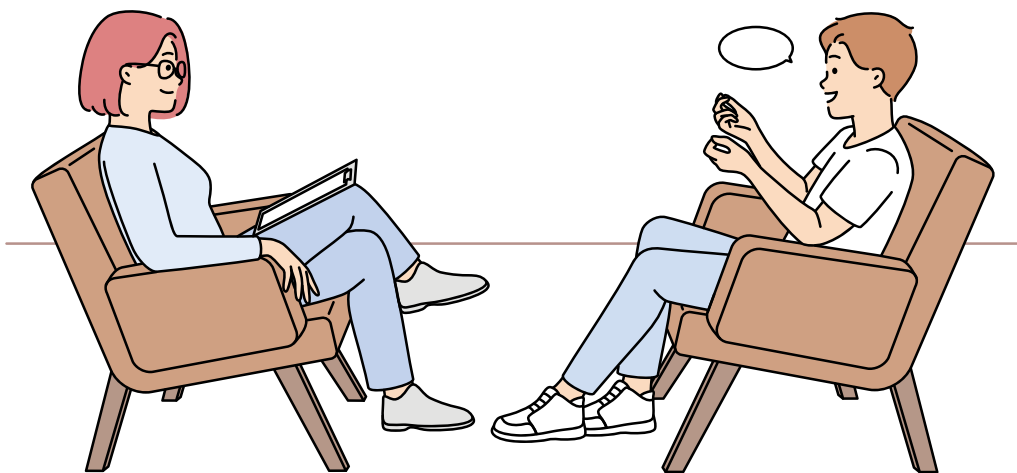
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턱 밑에 수염이 거뭇하고 어깨도 넓은 청년이었다. 한 눈에 외국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영어와 필리핀 지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한국어도 제법 말하고 읽고 쓸 줄 알았다. 필리핀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선택권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학교를 바로 다닐 수 없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학교 입학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아이는 교재의 모든 한국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발음 및 뜻을 꼼꼼하게 적어두고 뜻을 외우고 말하기를 연습하느라 열심이었다. 언젠가 한국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속도는 더뎠지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꽤 흥미로워했다. 맑은 눈에 눈웃음이 가득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도 긍정의 힘으로 가벼워졌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폐쇄가 잇따랐다. 내담자의 가족처럼 이주민들이 다수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 불편한 시선들이 집중되기로 했다. 결국 첫 내담자와 완결성 있는 종결을 하지 못했다. 화상상담이 일반화되기 전이라 간단한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상담자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첫 상담을 통해 상담자가 가지게 되는 긴장과 설렘, 부담과 책임감을 경험했다. 이주배경을 갖고 한국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편견 어린 시선도 확인했다.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지만 이곳에서 견뎌야 하는 고된 시간의 무게도 알았다. 상담자로서 그들 곁에서 함께 버텨줘야 한다는 것도 그때 배웠다.



함께 손잡고 더 넓은 창을 열다

어느 겨울, 학회 게시판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마음톡톡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잘 지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 했었던, 나의 첫 내담자였던 눈이 맑은 필리핀 아이가 떠올랐다. 상담사로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함께 아직도 배울 것이 많지만 이제는 뭔가 더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생겼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드디어 마음톡톡상담사로 나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톡톡상담의 가장 큰 이점은 한국어가 서툰 내담자를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상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상담통역지원사가 해당 언어로 내담자에게 전하고 내담자의 답변을 상담통역지원사가 상담사에게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이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철저해야 하는 상담 장면에서 제3자가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의 상담 현장에 상담통역지원사가 함께하지 못해 화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낯설음과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담통역은 마음톡톡상담 장면의 필수 요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국어는 목구멍 속으로 쑥 넣어놓을 수밖에 없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대답은 “응”, “아니요”, “몰라요” 외에는 잘 내뱉기도 어려운 한국어만 사용해야 하는 내담자에게 모국어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얼굴에서 티가 난다. ‘정말 반가워요’라고 표정이 얘기한다. 상담이 무엇인지, 뭘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내담자가 대부분이지만 상담통역지원사를 통해 건네는 상담사의 질문은 알아들을 수 있어서 눈이 조금 더 커지고 귀도 더 열게 된다. 그러면서 내담자의 마음도 점점 크게 열린다. 물론 몇몇 성격이 급한 상담통역지원사는 내담자에게 부가적인 설명을 더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줄여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서로 맞추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이라는 조금 다른 범주의 상담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담통역지원사의 역할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새로운 롤 모델이 되기도 한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상담통역지원사를 보고 실제 놀라는 내담자도 여럿 있었고 수줍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일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 한국어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되돌려주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다.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상담통역지원사가 전달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준다. 상담사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담통역지원사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과 상담을 하던 중 한국의 전통놀이인 구슬치기에 대해 설명하자 내담자도 베트남의 비슷한 놀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했다. 설명이 다소 불분명했지만 상담통역지원사가 해당 놀이에 대해 힌트를 주면서 통역을 유연성 있게 이어 나갔다.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상담통역지원사에게 내담자의 모국어 구사 정도를 확인해 인지, 학습, 사회적 기능 수준을 파악하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내담자는 또래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는데 상담통역지원사의 의견을 듣고 내담자의 방어적인 태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상담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라 상담통역지원사가 배치되는 상담에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경우도 있다. 마음톡톡상담에서 상담통역지원사와 상담사는 손발을 맞춰 한 내담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애쓰는 ‘한 팀’이 된다.

언어를 넘어서 마음으로 안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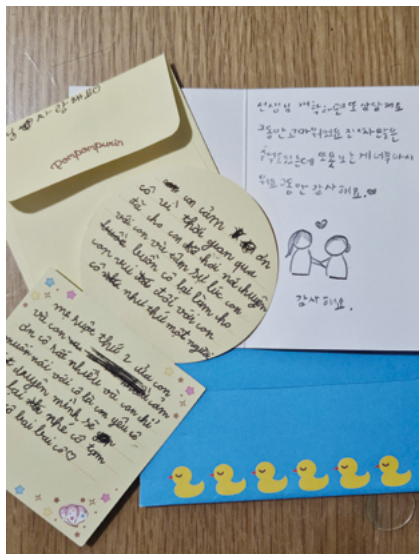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터라 마음톡톡상담사로 만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아직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수십 배의 숫자로 비이주배경청소년들을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쉽게 떠오르는 걸 보면 그 상담이 주는 깊은 인상과 주고 받아지는 에너지의 순도가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한국에 와서 이렇다 할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중국 출신 여자 학생이 있었다.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한국에 있는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아버지가 미처 채우기 어려웠다. 상담 중에도 한참 낮을 가리며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했던 내담자는 종결 회기에 이르러 상담사와 상담통역지원사와의 이별을 절감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건드려져서 회기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상담 중에 내담자와 신체 접촉을 지양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내담자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양육 초기에 한국에 와서 성장하면서 누

구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던 베트남 출신의 여자 중학생도 안타까운 고민을 갖고 있었다. 사정이 있어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라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추방될 위험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불안을 호소했다. 자해와 학교 부적응이 드러나서 안타까움이 컸다. 내담자가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를 함께 꼼꼼히 살펴 피며 지지와 공감의 태도를 전달했다. 비자에 관한 상담이 필요해서 관련된 단체^❶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공유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

최근에 만난 열 살 아동은 베트남에서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통통하고 귀여운 얼굴이 옛되어 보였다. 더듬더듬 한국어로 “선생님 밥 먹었어요?”, “선생님 더워요?”를 물어보며 불임성 있게 다가오려는 모습이었다. 베트남에서 친어머니와 지내다가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와 살기 위해 중도입국한 사례였다. 아이는 “그냥 한국에 놀러 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계속 살게 되는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설명도 없으며, 결정은 전적으로 어른의 몫이다. 살던 곳에서 친구나 가족과 이렇다 할 이별의 마음도 나누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색하고 낯선 한국 생활은 주변 누구에게도 공감 받지 못하고 적응을 강요당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화장실에서 홀로 울음을 삼키며 감추고 있는 아이에게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너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줬다. 어머니를 두고 한국에 온 건 너의 결정이 아니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줬다.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어머니도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전해줬다. 아이와 놀이도 하고 친구 이야기, 오늘 입고 온 옷이나 머리 장신구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기를 이어갔다. 상담을 마무리할 때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카드에 써서 전해주는 활동을 자주 활용하는데 아동과도 나누고 싶은 말이 있었다. 짧지만 잘 해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고 멋진 ‘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내담자는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어서까지 펜으로 꺾꺾 눌러 가며 마음을 담아 전달해 줬다.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공개해 본다.

그동안 저랑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슬플 때마다 기분도 다시 좋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선생님이 두 번째 엄마와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ye bye♡

❶ <http://www.chingune.or.kr/>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2011년에 설립된 단체로 이주민을 위한 인권, 법률 상담, 문화 교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과 종결 무렵 나누는 소소한 마음의 카드는 소중한 추억이다

아직도 먼 길이지만 함께 간다

마음톡톡상담사의 활동 중에는 재단의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기관 방문도 포함된다. 일종의 영업이다. 방문하는 곳에서 저마다 사업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을 공감해 주어 감사하다. 사실 이곳에서 활동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 재단의 활동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폭넓게 알려져야 함은 당연한 과제다.

아동청소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 상담이 못지 않게 중요할 때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다.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신이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흔히 만난다. 학습적인 성취, 또래 관계 맺기의 어려움, 충동 조절 문제, 스마트 기기 과이용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자주 발견한다. 출신 배경을 떠나 청소년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많고 정보를 찾아보자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나 특강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획득한 청소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사로서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더해야 한다. 슈퍼비전 등의 수련은 물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도 습득해 나가야 한다. 재단, 상담통역지원사, 상담사 모두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채워지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한

김거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마음톡톡상담사(경상지역)
심리학(상담)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중독과 청소년 분야를 전문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상지역 마음톡톡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 robertok1984@naver.com

재단 마음톡톡상담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 동기는?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함께 전 세계가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서 국내가 아닌 외국에 대한 호기심, 동경심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장래 희망은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세계지도와 웬만한 국가의 수도를 다 외울 만큼 관심을 가졌고 TV나 책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을 알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가는 대만이나 중국,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랍권, 동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의 방식도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그들의 삶과 문화를 느껴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심리상담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타국에서 온 청소년 및 성인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독이나 문제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그룹홈에서 중독심리상담사로 있을 때는 주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미교포 마약중독자들과 거주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었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지만 어느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 치유 재활 선임으로 근무하며 조선족 부모를 둔 청소년의 도박 중독 상담을 진행한 바 있고, 대구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족 어머니를 둔 중학생 소년범과 가족 상담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에게도 청소년의 시기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제가 만나왔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 한국문화와 언어의 부적응,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지체계도 빈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 대상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으로 약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재단의 지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단의 마음톡톡상담사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

우연한 기회에 재단을 만나고 마음톡톡상담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학창 시절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이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특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 사회 구성원 속에서 일부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상담 때문에 방문하고 있는 경주 지역의 학교들은 처음에는 일반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지만 점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마치 외국인 학교처럼 변해가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부적응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온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제, 한국문화 부적응, 그리고 심리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한 결핍, 이들을 돕기 위한 시스템의 미흡함 같은 것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된다면 이들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재단의 일원으로써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혹은 역할이 다소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지역 내에서 확고히 인식되고 교류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중에 기억나는 사례와 그 이유는?

재단을 통해서 상담했던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의미 있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 명을 꼽아본다면 활동 초기에 만났던 우즈베키스탄 출

신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편의상 가명으로 알렉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알렉스는 한눈에 보아도 서구적이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내면은 매우 어두웠는데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상황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를 반복적으로 이주하였고 작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된 친구였습니다. 잦은 이주 경험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인종차별의 상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경제활동에 매진 해야 하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도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자만의 세계로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아직 어린 중학교 2학년의 학생과 상담한다기보다는 인생을 매우 오래 살아온 성인과 상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상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단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렉스의 마음이 진정으로 공감되었고 알렉스의 세계를 충분히 경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알렉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렉스는 10회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우울한 감정이 많이 해소되게 되었고 국내에서 요리사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효도를 하겠다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렉스 아버지와 두 차례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가 알렉스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부자간에 쌓여있었던 오해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 종료 후 다음 해 다른 학생의 상담을 위해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운동장에서 몇 차례 알렉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선생님하고 부른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작년보다 훌쩍 큰 키의 알렉스가 친구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농구를 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알렉스가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 요즘 괜찮아?”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알렉스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농구를 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알렉스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표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이 시작된 시기였기도 하고 알렉스가 호소하는 문제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담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저에게도 앞으로 만나게 될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와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의 차이점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이든 비이주배경청소년 상담이든 본질적으로는 사람과의 만남이고 발달 과정상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두 상담의 차이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언어를 비롯한 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이주배경청소년은 이미 상담사와 같은 문화와 언어, 환경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상담사는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문화보다는 내담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상담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주배경청소년이 되어서 상담을 받는다고 가정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문제로 백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문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로 언어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상담사에게 잘 전달이 될까하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담통역지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상담사는 상담통역지원사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상담통역지원사가 상담사의 말을 그냥 통역하는 것과 충분한 내담자 이해를 바탕으로 마치 상담사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 것은 내담자가 받아드리기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다른 문화권의 상담사에 대한 신뢰감에도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담사가 나의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국가와 문화, 이주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나 상담사가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라포 형성에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통해 편안함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모국이 생소하다면 상담 전에 해당 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도시, 관광지, 스포츠 스타, 음식, 대중문화 등을 이해하고 상담 초기에 가볍게 나

누어 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내담자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내담자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써 자신의 문제를 진정으로 내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자상담(상담사-내담자-상담통역지원사) 구조의 좋은 점 또는 어려운 점

사실 상담통역지원사와 함께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재단을 통한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통역지원사가 함께하는 삼자상담이 일반적인 일대일 상담과 비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연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몇 차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심리상담은 언어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에서는 상담 통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통역지원사의 존재로 인해서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단에서 지원되는 상담통역지원사 서비스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기관에서의 통역 지원은 단순히 상담사의 언어를 통역하는 수준이라면 재단에서는 상담통역지원사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이해하고 상담사와 내담자의 리얼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상담통역지원사별로 경험과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하며 상담통역지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일부 통역지원사들은 한국어 표현이나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의도와 감정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담통역지원사들의 꾸준한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는 상담사와 상담통역지원사가 호흡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상담통역지원이 줌(Zoom)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상담 장소의 인터넷 환경이나 음질 문제 등이 상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이 보완된다면 삼자상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사업 확장을 위한 제안 사항이 있다면?

우선 이주배경청소년들이나 가족, 학교, 유관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쇼츠, SNS 등을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알리는 홍보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UCC영상을 제작하는 경연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감각적인 방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조금 더 넓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학교와 소통을 통해서 재단과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가족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사업을 위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추가적으로 함께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 부족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관할 내 관리가 안 되는 이주배경청소년 사례도 있었고 위기 상담이나 중독상담 등 전문적인 영역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단과 잘 협의가 된다면 지역 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집단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요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유관기관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 미군 부대, 대형 종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 사례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사업에 대한 논의

2
칠곡군
가족센터 기관 방문



삼자상담 속 통역사의 역할은?

우수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상담통역지원사
몽골 출신으로 현재 재단에서
몽골어 상담통역지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통역의 역할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 sujungwoo@rainbowyouth.or.kr

상담통역지원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

저는 몽골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몽골어 상담통역지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초기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의 낯설고 외로웠던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몽골 출신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쉽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모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짓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겪는 불안, 친구들과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을 때,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연결자라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저는 이 일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진정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상담통역지원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제가 살아온 길 위에서 만난 중요한 사명입니다.

일반 통역 업무와 상담통역 지원 업무의 차이점

일반 통역이 주로 정보의 정확한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담통역은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감정과 맥락,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담 상황에서는 단어 하나, 말하는 속도, 침묵의 길이조차도 내담자의 심리 상태

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야 합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사와 사전 논의를 거쳐, 내담자의 배경과 상담의 목적, 조심해야 할 주제 등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준비를 넘어, 상담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상담이 시작되면 통역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그러나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 전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담자가 낯선 환경에서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통역사의 태도와 언어 사용은 매우 따뜻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는 언어 표현이 단순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너머의 감정과 의미를 읽어내고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통역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내담자와 상담사를 잇는 신뢰의 다리이자 정서적 중재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상담통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와의 호흡이 잘 맞았던 경험과 그렇지 않았던 경험의 차이

상담통역지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상담사와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역할과 상담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상담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감정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민감한 주제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등을 미리 조율하면서 상담이 한결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은 빠르게 마음을 열었고, 상담사와의 대화도 보다 깊이 있게 이어졌습니다. 통역사인 저 역시 내담자의 말과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상담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아이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배경 정보도 없이 아이와 마주하게 되면 긴장감이 더해지고 상담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역사인 저로서도 중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결국 상담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상담 전 상담사와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상담사를 단순한 '전문가'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접근할 때, 비로소 내담자인 청소년에게도 안정적인 상담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담통역지원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이주배경청소년의 공통적인 어려움

상담통역지원사로 활동하며 만난 많은 몽골 출신 청소년들은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의 장벽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부진뿐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보다 혼란과 불안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돌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정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역을 하던 중 청소년이 조심스럽게 가족 내 폭력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저는 그 민감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정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통역사의 역할이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아이의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초등학교 A의 상담이었습니다. A는 비교적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아동으로 표면적으로는 통역이 어렵지 않았지만, 말 너머의 감정과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점토로 피자를 만들며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라고 말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소재와 감정을 어떻게 상담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사와 논의하며 조율해야 했습니다.

또한, A는 특정 주제(예: 음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다른 주제에서는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통역사로서 저는 그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담사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했습니다.

A와의 상담 중 특히 어려웠던 순간은 과거 또래 여자아이에게 했던 신체 접촉을 재차 반복한 뒤 그것을 상담에서 다루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감한 주제였고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러나 문제의식은 분명히 인식하도록 표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실시간 감정 조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한번 해당 행동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주었고, A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역사로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상담의 본질을 연결하는 균형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언어 외에도 정체성 혼란, 문화 충돌, 가족 갈등, 또래와의 관계 문제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모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한국 사회의 기준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자주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국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담사와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상담통역지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

상담통역지원사는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내담자의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해석하고 연결해 주는 ‘정서적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예민하고 복합적인 영역을 다루는 만큼, 상담통역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상담의 기본 구조와 흐름, 윤리적 원칙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내담자의 말과 감정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에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이상이 요구됩니다. 비밀 보장과 감정 개입의 절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 반응 등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통역에 참여하는 것은 상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발달심리나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감수성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표현 뒤에 숨어 있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담사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소진되거나 혼자 고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사례 공유와 슈퍼비전 체계, 동료 통역사들과의 네트워킹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전문성을 다듬는 과정은 상담통역지원사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통역사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이나 워크숍이 마련된다면, 상담 현장에서의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상담사의 질문 의도나 상담 방향에 대해 통역사가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 내담자 역시 더 안정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통역지원사가 단순히 말의 전달자가 아니라, 청소년의 마음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사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며, 그런 점에서 더욱 섬세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의 곁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듣고, 저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맺음말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단순한 ‘말의 전달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이 안전하게 상담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정서적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이 온전히 이해받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은 늘 무겁지만 감사한 책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동행자로서 이 역할을 진심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귀기울이는 사람으로서,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 현장에서의 정서적 회복과 변화

이재아
서울영일초등학교 전문상담사
풍부한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심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중도입국 학생을 포함 다양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 iloveso120@sen.go.kr

재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된 배경 및 계기

서울영일초등학교에 편입한 중국 출신 학생은 중도입국 청소년이었습니다. 한 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학생은 언어, 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낮은 학 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수업 집중도가 낮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며 혼자 있는 시 간이 많아 교사로서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보호자인 어머니 역시 한국 사회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아이의 정서적 문제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재단의 상담 프로그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

이주배경청소년은 단순히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심 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는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체성 혼란과 학습 결손, 문화적 고립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 노출되 기 쉽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교사나 또래와 일 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적·문 화적 차이로 인해 본인의 마음을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켜보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전문상담사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학생의 겉모습만으로는 내면의 불 안과 고립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조용해 보이 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 정서적 긴장, 소속감의 결여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세심한 관찰 없이는 발견되기 어렵기 때 문에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상담 지원 과정에서 느낀 재단만의 차별성, 전문성

재단에서 파견된 마음톡톡상담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과 언어적 배려를 갖춘 전문가였습니다.

단순한 심리상담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 이중언어 사용의 혼란, 가족 간 갈등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특히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면서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이해와 양육 방향이 달라 졌고, 담임교사인 저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학교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심리·정서·문화 세 요소의 통합적 상담은 기존의 일반적 상담 개입에서 는 경험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이었습니다.

상담 이후 청소년의 변화 모습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와 학교 현장에 진입하면 서 단순한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낮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학습 격차,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위축감, 제도

와 환경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 다차원적인 부적응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깊은 정서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개입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영일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마음톡톡상담사와 상담통역지원사의 도움으로, 중도입국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섬세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마음톡톡상담사는 학생들의 마음의 언어를 존중하며 경청하고, 그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래 관계 형성, 교사와의 의사소통, 자기 표현 능력 향상 등을 도와 학생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상담통역지원사 또한 학생 개개인이 지닌 어려움에 맞춘 맞춤형 통역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상담통역지원사의 도움과 기여

서울영일초등학교의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상담통역지원사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문화적 연결고리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언어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매개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상담사가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통역지원사의 중립적이고 신중한 중재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학생이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지만, 상담통역지원사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언어 지원 덕분에 아이는 점차 상담 상황에 익숙해지고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통역지원사는 상담사가 사용하는 정서적 표현과 개방형 질문을 학생의 언어적 수준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율해 주었고, 반대로 학생의 표현 역시 상담사에게 문화적 뉘앙스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상담 시에도 상담통역지원사는 상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주배경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교사나 상담사와 소통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상담통역지원사를 통해 보호자 또한 자신의 생각과 양육 고민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공감과 협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통역지원사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상담자, 학부모와 학교 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생이 심리적 회복과 학교 적응이라는 여정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2) 언어·학습 부적응과 정서불안 해소의 사례

A, B, C 학생은 중도입국 이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위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A 학생은 시선 회피, 산만한 언어 표현, 반복적 질문 등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계 불안에서 비롯된 정서적 반응이었습니다. 마음톡톡상담사가 학생의 정서적 반응 이면에 있는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복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A 학생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수업 집중력도 향상되며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제도·문화적 낯센에서 오는 심리적 혼란 극복

B 학생은 초등 고학년 시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사례로, 한국 교육제도와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 또래 문화의 낯센으로 인해 좌절감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속해 있던 운동부 활동 중단으로 상실감과 통제 욕구가 심해졌고, 이를 교사나 성인에게 투사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음톡톡상담사는 B 학생의 문화적 혼란과 내면의 상실감에 공감하며, 감정 조절 훈련과 관계 회복 중심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학생은 점차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익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위치를 인식하는 등 사회성 향상과 자아 존중감 회복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서, 학교 내 제도와 집단 규범 안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사례였습니다.

4) 느린 학습 적응과 정서 회복의 연결

C 학생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한국어 표현과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톡톡상담사는 학생의 인지적 특성과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병행하고, 학습 동기 유발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C 학생은 영어 등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영역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며 학습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잘하는 것을 통해 부족한 점도 채워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해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학업지원이 아닌, 정서적 안정과 자아 회복이 바탕이 된 심층적인 상담 개입의 성과였습니다.

5) 상담사의 전문성,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핵심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소속감의 결핍, 제도적 이해의 한계, 사회적 관계 불안, 낮은 자존감 등 복합적인 부정적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마음톡톡상담사 개입이 학생들의 복합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적응으로 전환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단순한 정서적 지지자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감정을 말하고,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 기반의 안내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이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중심의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상담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맞춤형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

이주배경청소년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담사로서, 맞춤형 상담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D, E, F, G 학생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언어적 장벽과 학습 격차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서적, 사회문화적 고립감 속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교사 혼자 노력으로는 접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D, E 학생은 중도입국 후 언어적 한계와 정서 불안을 겪으며 교실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물건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과잉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불안정한 내면에서 기인한 감정 표현이었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육 이상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마음톡톡상담사 개입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상담을 병행하며 학생들의 정서적 기반을 다져준 결과, 아이들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며 수업

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F 학생의 경우, 언어 표현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축된 태도와 낮은 자존감이 지속되었으나, 마음톡톡상담사의 꾸준한 정서적 지지 덕분에 점차 친구들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G 학생은 과잉행동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으로 학급 내 갈등을 자주 일으켰지만, 마음톡톡상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즐기는 모습에서, 상담이 정서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재단의 상담 지원이 단순히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닌 아이가 ‘한국사회의 구성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상담실 안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과 삶 전반을 이루만지는 깊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사의 역할은 학생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학교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냅니다. 낯선 문화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된 다각적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이 전방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해줍니다.

이러한 상담이야말로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단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소속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저는 학교 상담사로서, 학교에 이러한 맞춤형 상담이 더 자주,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연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우리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책임 있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위기는 일반적인 학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마음톡톡상담사의 현장 개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기회’임을 경험하였습니다.

향후 상담 기반의 개입이 더 넓게 확산되고,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현장 교사로서 강하게 제안합니다. 

발간번호 MYF25-07-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5년 8월 31일
발행인 유기옥
편집인 양공현, 임정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전화 02-733-7587
팩스 02-733-7586
홈페이지 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Tel. 02-733-7587 **Fax.** 02-733-7586 **Homepage.** www.rainbowyouth.or.kr